

# 과테말라의 투자환경위험 평가보고서

(2013. 5. 31)

## I. 투자통계 평가

### I-1. 우리나라의 대 과테말라 해외직접투자(ODI) 실적

단위: 건, 천 달러

	2010	2011	2012	투자누계
연중 투자건수	1	0	2	78
연중 투자총액	600	50	353	112,749
(전년대비 증감률)	(-85.2%)	(-91.7%)	(606.4%)	

#### □ 우리나라의 대 과테말라 해외직접투자 동향(요약)

- 우리나라의 대 과테말라 직접투자는 2009년 연중 400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2010년 60만 달러, 2011년 5만 달러로 급감하였으나 2012년에는 다시 35만 달러로 증가함.
- 2012년 12월 말 누계 기준 대 과테말라 직접투자 규모는 총 78건(투자건수), 1억 1,275만 달러(투자금액)를 기록하고 있으며, 주요 투자업종은 제조업, 건설업 등임.

### I-2. 대 과테말라 외국인직접투자(FDI) 유입 실적

단위: 억 달러

	2010	2011	2012
연중 유입금액	8	10	15
(전년대비 증감률)	(33.3%)	(25.0%)	(50.0%)

#### □ 대 과테말라 외국인직접투자 동향(요약)

- 과테말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(FDI) 유입액은 2002~08년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2009년에는 세계경기 침체로 전년 대비 20% 감소함. 그러나 2010년 8억 달러, 2011년 10억 달러, 2012년 15억 달러로 최근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.
- GDP 대비 FDI 유입액 비중은 2% 수준으로 다른 중남미 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이며, 주요 외국인 투자업종은 제조업, 상업, 농업 및 광업 등임

## II. 국가위험도 평가

### II-1. 과테말라 국가신용등급

	2011	2012	2013.5
한국수출입은행	C3(Stable)	C3(Stable)	C3(Stable)
OECD	5	5	5
S&P	BB/Negative	BB/Stable	BB/Stable
Moody's	Ba1/Stable	Ba1/Stable	Ba1/Stable
Fitch	BB+/Stable	BB+/Stable	BB+/Stable

#### □ 과테말라 국가신용등급 변동내역(요약)

- OECD는 2006년 과테말라의 국가신용등급을 6등급에서 5등급으로 상향조정 한 이후 2013년 5월까지 5등급을 부여하고 있음.
-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은 과테말라의 GDP 대비 높은 재정수지 적자, 취약한 법률제도, 인프라 미비 등을 이유로 투기등급 수준인 BB(S&P), Ba1(Moody's), BB+(Fitch)를 각각 부여하고 있음. 2012년 9월, S&P는 조세제도 개혁을 통한 재정수입 증가 등으로 향후 3년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축소(-3%→-2.5%)가 예상 되는 점을 고려하여 과테말라의 신용등급 전망을 BB/Negative에서 BB/Stable로 상향조정함.

### II-2. 과테말라 단기유동성위험

	2011	2012
총외채/총수출 (%)	95.7	95.1
외환보유액/월평균수입 (개월)	3.7	3.4
외채원리금상환비율(DSR) (%)	11.6	8.7
단기외채/외환보유액 (%)	59.2	59.8
ECA 거래실적(OECD) (%)	0.8	85.0

주) OECD, CRAM 기준.

### II-3. 과테말라 수용·송금위험

	진단점수	
	2012.4	2013.5
수용위험(계약실행 가능성)	3.5	3.5
이윤 송금위험	3.5	3.5
대외지급 연체위험	2.5	2.5

주) PRS, ICRG 기준.

### III. 투자여건 평가

#### III-1. 과테말라 기업경영여건

		기업경영여건 순위	
		2011	2012
<b>종합순위</b>		<b>97/183</b>	<b>93/185</b>
1	사업개시(기업등록절차)	165/183	172/185
2	사업허가(상품보관창고 건축)	151/183	94/185
3	재산등록(재산양도 규제)	23/183	20/185
4	전력수급(신설창고 전력공급 절차)	30/183	34/185
5	신용획득(법적권리·신용정보)	8/183	2/185
6	투자자보호(기업 거버넌스)	133/183	158/185
7	조세납부(조세부과대상·환급)	124/183	124/185
8	대외무역(수출입)	119/183	117/185
9	계약실행(법정 효율성)	97/183	96/185
10	사업폐쇄(파산)	101/183	109/185

주) World Bank(IFC), Doing Business 기준.

#### III-2. 과테말라 글로벌경쟁력지수

		글로벌경쟁력지수 순위	
		2011	2012
<b>평균평점/종합순위</b>		<b>4.0(84/142)</b>	<b>4.0(83/144)</b>
1	제도(정책, 시스템)	3.1(129/142)	3.3(124/144)
2	인프라스트럭처	3.9(70/142)	3.8(75/144)
3	거시경제 안정성	4.7(76/142)	4.6(77/144)
4	보건·교육	5.3(100/142)	5.3(95/144)
5	인력관리(연수)	3.5(100/142)	3.5(104/144)
6	상품시장 효율성	4.2(65/142)	4.3(66/144)
7	노동시장 효율성	4.0(98/142)	4.2(90/144)
8	금융시장 발전수준	4.4(46/142)	4.5(41/144)
9	기술수준	3.5(80/142)	3.5(87/144)
10	시장규모	3.5(76/142)	3.5(73/144)
11	기업 발전수준	4.1(55/142)	4.2(57/144)
12	혁신	2.9(91/142)	3.0(90/144)

주) WEF, GCI 기준.

### III-3. 과테말라 시장동향 · 제도변화

<p><b>투자정책</b> (산업관리) (법률·규제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<b>주요 산업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과테말라 정부는 마길라(Maquila, 보세가공업), 임업, 광업 등 주요 산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투자를 장려하고 있음.</li> <li>- 마길라 업체가 위치한 장소는 자유무역지대로 간주되어 1년간 수입기계 및 원재료에 부과되는 세금 및 관세가 면제되며 투자자에 대해 10년간 소득세 면제 혜택이 부여됨.</li> <li>- 정부는 2016년부터 보세가공 수출업체에 대한 법인세 면제 혜택이 종료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한 신규 산업단지 조성 및 각종 수출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을 수립함.</li> </ul> </li> <li>□ <b>투자 유치를 위한 기업환경 개선 노력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지속가능한 고용창출,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기업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으며, 2013년 기업경영여건(Doing Business) 순위 10계단 상승을 목표로 하고 있음.</li> <li>○ 사업자 신속등록 시스템(Ventanilla Agil Plus), 건축허가 윈스톱 서비스(Ventanilla Unica Municipal) 도입을 통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등록절차 및 건축허가증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, 고용주의 사회보장제(IGSS) 온라인 납부시스템도 도입함.</li> </ul> </li> <li>□ <b>수력 위주의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화석연료 수급 불안정에 따른 전기세 인상에 대처하기 위해 발전설비를 확충하는 한편,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.</li> <li>- 과테말라 정부는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(수력, 지열, Bagasse 등)를 이용한 발전비중을 확대하는 내용의 전력발전확장계획 2008-2022(El Plan de Expansión Indicativo de Generación 2008-2022)를 수립함.</li> </ul> </li> <li>□ <b>2012년 중 대규모 유전개발 프로젝트 추진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2012년 8월, 과테말라 정부는 Cotzal, Laguna Blanca, El Cedro, La Libertad 등 7개 원유 생산지에 대한 투자 계획을 밝힘. 투자금액은 각 지역당 4,000만 달러, 총 2억 8,000만 달러 규모이며, 유전 개발과 함께 도로 건설, 교육 및 의료 부문 투자 등의 기초 인프라 구축도 수반될 것이라고 밝힘.</li> <li>- La Libertad 지역을 제외한 6개 지역의 입찰이 완료된 상태이며, 유전이 개발되면 연간 원유 생산능력이 3.9백만 배럴에서 2020년에는 18.8백만 배럴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.</li> </ul> </li> </ul>
<p><b>외환제도</b> (외환통제) (해외송금) (환율동향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<b>외환거래 자유화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1989년 환율 자유화 조치를 단행, 환율이 외환시장의 수급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현재 외채상환을 포함한 모든 외환거래에 시장환율이 적용되고 있음.</li> <li>○ 1993년 외환거래 자유화 조치로 외환거래에 대한 일체의 규제가 없음. 다만, 외환거래는 인가된 금융기관(은행, 환전소, 제2금융회사 등)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거래내역을 중앙은행에 통보해야 함.</li> </ul> </li> <li>□ <b>외화 현금의 은행예치 제한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불법경제활동 통제 및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외화 현금의 은행예치를 1개월 내 3천불 이하(또는 상당액)로 제한하고 있음(2011.1월 발효).</li> <li>- 3천불 초과 입금 시 자금출처 합법성 및 투명성 확인서류, 입금자(기업)가 외화 현금을 받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류를 거래은행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함.</li> </ul> </li> </ul>
<p><b>조세제도</b> (법인세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<b>순수익 또는 총수입의 일정비율을 법인세로 납부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순수익의 31% 또는 총수입의 5% 중 택일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며 아래와 같이 세율이 변화될 예정임.</li> <li>- 순수익 방식: 31% → 28%(2013년) → 25%(2014년)</li> <li>- 총수입 방식: 5% → 6%(2013년) → 7%(2014년)</li> </ul> </li> <li>□ <b>조세수입 부족 지속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2012년 조세부담률은 11%로, 현 Otto Perez 정부는 2014년까지 조세부담률을 12.6%로 증가시키기 위해 세수확대대책을 수립 중임. 세수확대 방법으로는 법인소득세 인상, 단결세 인상, 인지세 인상, 이동통신세 신설 등이 거론되고 있음.</li> <li>○ 조직범죄 및 부정부패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득세(ISR) 회피율이 63.7%로 추정됨. 2011년에는 불법행위를 통해 형성된 재산을 몰수하여 국가에 환수하는 불법재산 환수법(일명 反마피아법)이 발효되었음.</li> </ul> </li> </ul>

<p><b>금융제도</b> (현지조달) (자본시장)</p>	<p><b>□ 현지 금융조달 곤란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과테말라는 1980년대 말부터 금융부문 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외형적으로는 금융업이 급성장하였으나, 취약한 자본구조 및 높은 대출이자율로 인해 외국기업들은 주로 현지은행 대신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음.</li> <li>○ 단기대출의 경우 기간이 180일로 제한되며 11~15% 수준의 이자율이 적용됨.</li> <li>○ 중장기대출은 대부분 수차례 단기대출 실적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국기업이 중장기대출을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.</li> </ul> <p><b>□ 기준금리 5% 유지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2009년 통화당국은 경기 진작을 위해 정책금리(tasa lífder)를 연초 7.0%에서 4.5%까지 인하함. 그러나 2011년에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5.5%로 단계적으로 인상했으며 2012년 6월에 5%로 한 차례 인하한 이후 현재까지 5%를 유지하고 있음.</li> </ul>
<p><b>노동제도</b> (근로조건) (고용·해고) (노사관리)</p>	<p><b>□ 노동법 개정 후 임금 지속적 상승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과테말라는 인건비가 저렴한 편이었으나 2000년 3월 개정된 노동법에 의해 6개월마다 경제상황을 검토하여 임금을 재조정함에 따라 임금수준이 급상승하고 있음.</li> <li>○ 2012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6.8% 상승하였으며, 2009년 이후 최저임금의 연평균 상승률은 약 9.5%를 기록하고 있음.</li> <li>○ 2013년 1월 기준 법정 최저임금은 1일(8시간 근무기준) 71.4께찰(9.1달러)이며, 보세가공업(Maquila)의 경우에는 65.6께찰(8.4달러)임.</li> </ul> <p><b>□ 노조 결성률은 낮은 수준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식 통계는 없으나 노조 결성률은 10% 정도로 추정되며 노조 설립을 위한 정부 승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. 공공 부문에는 비교적 노조가 많이 결성되어 있으며 최근 민간 부문에도 노조가 확대됨에 따라 노동쟁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음.</li> </ul>
<p><b>무역제도</b> (관세수준) (무역제한)</p>	<p><b>□ 중미경제통합기구(SIECA)의 공동관세율(SAC) 적용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인근 엘살바도르, 온두라스, 니카라과 및 코스타리카 등과 함께 중미경제통합기구의 공동관세율을 채택하고 있음.</li> <li>-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0~17%의 종가세(CIF 기준)가 적용되나 알콜음료는 최고 40%, 옥수수, 설탕, 권련, 일부 차량 및 무기·탄약 등은 최고 20%의 세율이 적용됨.</li> <li>○ 2012년 12월 기준 평균수입관세율(관세징수액/CIF 수입총액)은 2.36% 수준임.</li> </ul> <p><b>□ 주요 교역국과의 FTA 체결 확대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미국, EU, 주요 중남미 국가를 포함한 총 9개국과 FTA를 체결하였음. 아시아에서는 대만과 유일하게 FTA를 체결하였으나, 최근 중국 및 한국과의 FTA 체결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음.</li> </ul> <p><b>□ 미국 경제에 대한 높은 의존도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미국이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%에 이르며, DR-CAFTA(미국-중미-도미니카 간 자유무역협정) 체결 이후 미국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.</li> </ul>

주) 종전 대비 투자환경 및 시장상황 변동내역 확인

□ 과테말라 시장동향 · 제도변화 평점

중전평가 대비	매우 악화	악화	유지	개선	매우 개선
투자정책				X	
외환제도				X	
조세제도			X		
금융제도		X			
노동제도		X			
무역제도			X		

주) 중전 대비 변동내역 및 현 수준 평가

□ 과테말라 시장동향 · 제도변화(환율변동 · 국채수익률 · 소비자물가상승)

	2011	2012	(증감률)
환율변동	7.79	7.83	0.5%
물가상승률(2012년)	6.22%	3.78%	

## IV. 종합 평가

평가분야	평가의견
투자통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input type="checkbox"/> 과테말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(FDI) 유입액은 2010년 8억 달러, 2011년 10억 달러, 2012년 15억 달러를 기록하여 2009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.</li> <li><input type="checkbox"/> 우리나라의 대 과테말라 직접투자는 2009년 연중 400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2010년 60만 달러, 2011년 5만 달러로 급감하였으나 2012년에는 다시 35만 달러로 증가함.</li> </ul>
국가위험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input type="checkbox"/>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은 과테말라의 GDP 대비 높은 재정수지 적자, 취약한 법률제도, 인프라 미비 등을 이유로 투기등급인 BB(S&amp;P), Ba1(Moody's), BB+(Fitch)를 각각 부여하고 있으며, OECD는 2006년 이후 5등급을 유지하고 있음.</li> <li><input type="checkbox"/> OECD 회원국 ECA에 대한 연체금액이 2011년 20만 달러에서 2012년 1,250만 달러로 확대되어 단기유동성위험이 증가함.</li> <li><input type="checkbox"/> 수송·송금위험은 종전 수준을 유지함.</li> </ul>
투자여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input type="checkbox"/> 기업경영여건 종합순위는 2011년 97위/183위에서 2012년 93위/185위로 소폭 상승함. 특히, 사업허가 부문은 전년 대비 크게 개선(151위→94위)되었으나, 투자자보호 부문은 전년 대비 순위가 급락(133위→185위)함.</li> <li><input type="checkbox"/> 글로벌경쟁력지수 종합순위는 84위/142위에서 83위/144위로 종전 수준을 유지함. 2012년 기준으로 제도(정책, 시스템)(124위) 및 인력관리(104위) 부문의 순위가 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.</li> <li><input type="checkbox"/> 투자정책 및 외환제도 부문의 우호적 환경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마킬라 등 주요 산업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를 통해 투자를 장려하고 있으며, 신재생 에너지 투자 확대, 유전개발 등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.</li> <li>○ 환율 자유화조치로 모든 외환거래에 시장환율이 적용되고 있으며, 외환거래 자유화 조치로 외환거래에 대한 일체의 규제가 없음.</li> </ul> </li> <li><input type="checkbox"/> 금융제도, 노동제도 부문의 투자저해요인 존재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단기대출의 경우 기간이 180일로 제한되며 11~15% 수준의 이자율이 적용됨. 중장기 대출은 대부분 수차례 단기대출 실적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국기업이 중장기대출을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.</li> <li>○ 과테말라는 인건비가 저렴한 편이었으나 2009년 3월 개정된 노동법에 의해 6개월 마다 경제상황을 검토하여 임금을 제조정함에 따라 임금수준이 급상승하고 있음. 2013년 1월 기준 법정 최저임금은 1일(8시간 근무기준) 71.4께찰(9.1달러)이며, 보세가공업(Maquila)의 경우에는 65.6께찰(8.4달러)임.</li> </ul> </li> <li><input type="checkbox"/> 통상 분야에서는 주요 교역국과의 FTA체결 확대, 중미경제통합 지속추진, 투자기업 인센티브 확대, 관광산업 개발 등을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음. 미국에 대한 높은 무역의존도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.</li> </ul>
종합평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input type="checkbox"/> 투자환경위험 평가(위험)수준은 <b>정상(“보통”)</b>으로 분류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과테말라는 투자 유치를 위한 기업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으며 기업경영여건 및 글로벌경쟁력지수 순위도 소폭 상승하였으나, 국가신용등급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최근 단기유동성위험도 증가하였음.</li> <li>○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 추진, 외환거래 자유화 등으로 투자정책 및 외환제도 부문은 양호한 편으로 평가되나, 현지 금융조달에 제약이 있으며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.</li> <li>○ 신재생에너지, 유전개발 등 과테말라의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 발주가 이어지고 있어 관련 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의 참여기회 확대가 예상됨.</li> </ul> </li> </ul>